


# 公心 · 願力의 1년… '불교' 바꾸다

공심(公心)이 담긴 하나의 원력(願力)이었다. 지난 2019년 2월 백담사 무문관 동안거를 마친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만나는 대중에게 이렇게 제안했다.

"가장 낮은 곳에서도, 다 놓아버린 곳에서도, 세상이 바라보지 않는 곳에서도 틀림없이 공부가 있을 것이니, 승가 본연의 모습으로 차별없이 정진해보자."

한 명의 원력으로 시작된 상월선원 결사는 천막결사를 거쳐 만행결사까지 장장 1년 동안 이뤄졌다.

'결사' 라는 무거운 단어가 있었지만, 무겁지만은 않았다. 지난해 겨울 위례종교부지의 비닐하우스 천막서 아홉 스님들이 무문관 동안거 정진을 했고, 사부대중은 이곳을 찾아 절과 기도하고 음성공양을 올렸다. 정(靜)을 바탕으로 했지만, 동(動)도 함께했다. 서릿발 같은 날선 정진의 공간에 뜨거운 사부대중의 신심이 어우러졌다.

이듬해 봄 상월선원은 만행결사를 준비했다. 만행의 장소는 인도였다. 인도 부처님 성지 1080km를 걷는 대장정이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났고, 한국 순례로 우회했다.

상월선원 만행결사는 7월 태화산서 예비순례를 진행하며 10월 자비순례를 준비했다. 10월 7~27일 21일간 이뤄진 자비순례에는 69명이 '불교중흥 · 국난극복' 의 원력으로 511km 국토 종주 순례를 완주했다. 코로나19로 엄격한 방역 지침 아래 마스크까지 쓴 악조건 속에서도 순례단은 원력을 되새기며 걷고 걸었다.

이 같은 일련의 상월결사는 수사로 가득한 번지레한 접촉이 아니었다. "중생에게 차별없이 다가가겠다"는 전환의 선언이었다. 결사의 원력에 대중들은 공감했고, 이에 열렬한 호응을 보냈다. 공심과 원력으로 시작된 상월결사의 1년은 미래불교로의 변화를 화두로 던진 시간이었다. 변화는 시작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